

Kim Younggon

2015 The Eugeniusz Geppert Academy of Art and Design in Wroclaw
Major Specialty Training (Poland)

2016 Craft Trend Fair "Dongji Seotdal" (COEX/Seoul)

2017 B.F.A in Ceramic Art, Kyung Hee University College of Art&Design

Group Exhibition "Breath, and Trace"(CHOHYUNG Gallery/Seoul)

London Design Fair- New Designers (Business Design Centre)

Craft Trend Fair "A space for poets" (COEX/Seoul)

8th International Gizem Frit Ceramic Competition Pre-Elimination (Sakarya/Turkey)

金榮坤

2015 ヴロツワフ芸術デザインアカデミー 短期研修(ポーランド)

2016 工芸トレンドフェア「真冬の夜長」(COEX/ソウル)

2017 慶熙大学卒業(ソウル)

グループ展「そして痕跡」(仁寺洞造形ギャラリー/ソウ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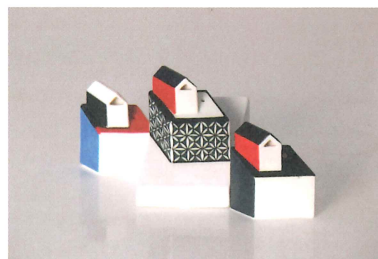
ロンドン・デザイン・フェア ニュー・デザイナーズ(ビジネス・デザイン・センター)

工芸トレンドフェア「詩人のための空間」(COEX/ソウル)

第8回ギゼム フリット国際セラミック・コンペティション入選(サカリヤ県/トルコ)



《Paper Pot》2017



《Young Home》2017

丸沼芸術の森は1985年、須崎勝茂氏(株式会社丸沼倉庫 代表取締役)により設立され、40名以上のアーティストを輩出してきました。30年以上の支援活動の結果、村上隆氏を始め、多くの作家が現在、国内外で活躍しています。丸沼芸術の森は制作の場に留まらず、アートと社会を結ぶ架け橋となっています。今後は、国際文化交流を通じ、よりグローバルな活躍を各作家が目指せるようにレジデンスや展覧会の企画などを積極的に行い、活動の幅をさらに広げていきます。

Marunuma Art Park was established by Mr. Katsushige Susaki in 1985, and we hosted over 40 artists since then. Many artists, including Takashi Murakami, are active both at home and abroad as a result of our continued support to artists for over 30 years. Marunuma Art Park is not only a space for the conception of art but also acts as a bridge connecting art to society. We aim to further expand by broadening the range of our activities and proactively executing residency programs and exhibition plans. We hope that our artists can become more involved in international exchanges and globally more active.

丸沼芸術の森

Marunuma Art Park

〒351-0001 埼玉県朝霞市上内間木493-1

TEL: 048-456-2533

FAX: 048-456-0003

<http://marunuma-artpark.co.jp>

<http://marunuma-artpark.eyes.es>

金榮坤展 / 幸せの壺ー私の好きなカタチと文様

主催: 丸沼芸術の森・韓国工芸デザイン文化振興院

後援: 駐日韓国文化院・Azabujuban Gallery

丸沼芸術の森
MARUNUMA ART PARK

Kcdf Korea Craft & Design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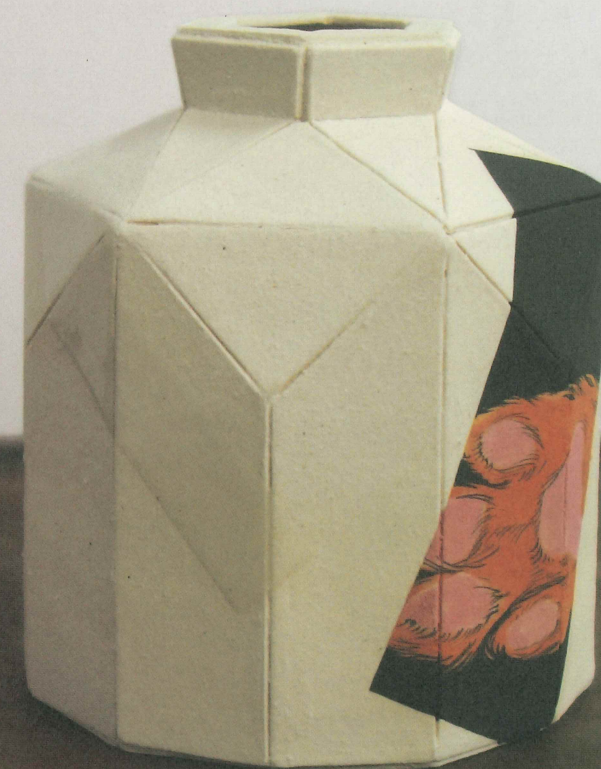
駐日韓国文化院
Korean Cultural Center

Azabujuban Gallery

金榮坤 展 / Kim Younggon Solo Exhibition

幸せの壺ー私の好きなカタチと文様

Happy Box - My Favorite Form and Pattern



Marunuma Art Park

2018 artists-in-residence program No.1

2018年5月17日(木)・18日(金)

《Pot-Dear》2018

2017年より丸沼芸術の森と韓国工芸デザイン文化振興院が共同で実施してきたアーティスト・イン・レジデンス・プログラム、本年度一人目の作家として滞在制作を行う^{キムヨンゴン}金榮坤は、昨年ソウルの慶熙大学卒業後、「伝統が息づく現代の韓国を陶芸で表現したい」と考え、ペーパー・クレイと呼ばれる現代的な技法を用いながら、チマチョゴリや伝統絵画をモチーフとした作品をこれまで発表してきた。

「ペーパー・クレイ」とは紙粘土とは異なり、パルプ(紙の原料)を陶土に混ぜた上で成形し、焼成時にパルプの成分を燃え尽きさせるものだが、パルプに含まれる繊維が支えとなり、より肉薄で細やかな造形が可能になると言う。

「幸せの壺」と題された本展は金が愛する、あるいは大切にするものへの思いを、ペーパー・クレイの壺へと封印する作品を30点あまり展示するものだ。韓国には「シンジュタンジ(神主甕)」と呼ばれる、氏神や祖先の靈魂を甕に納め崇拝する民間風習があるそうだ。韓国でも途絶えつつあるものだが、金の実家で守られてきたシンジュタンジを思い起こし、本展のテーマにしたという。また、それぞれの壺には18-19世紀の朝鮮時代後期の民画にインスパイアされた絵付けを施すという。

陶芸家としてのキャリアをスタートして間もない金は、アーティストとして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模索する最中ではあるが、住み慣れた韓国を離れる本レジデンス・プログラムを通じて自分探しを行いたいと考えているという。3ヶ月の滞在制作を通し、さらなる飛躍に期待したい。

大竹輝明(丸沼芸術の森 学芸員)



《Pot-Hope1,2/Dear》2018

2017년 마루누마 예술의 숲과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공동으로 실시해온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올해 첫번째 작가로써 체재 제작하고있는 김영곤은 작년 서울 소재의 경희대학교를 졸업하고, "전통이 숨쉬는 현대의 한국을 도예로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페이퍼 클레이라고 불리는 현대적 기법을 이용해 한복, 전통 회화를 모티브로 한 작품을 지금까지 발표해왔다.

‘페이퍼 클레이’는 종이 점토와 달리 펄프(종이의 원료)를 도토(점토)에 섞은 후 성형한다. 연소시에는 펄프의 성분이 완전히 태워지지만, 펄프에 포함되는 섬유가 버팀목이 되어 섬세한 조형을 가능하게한다.

‘행복의 향아리’라는 제목의 이번 전시에는 김작가가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페이퍼 점토 향아리에 봉인하는 작품 30여점이 전시되어진다. 한국에는 '신주 단지'라고 부르며 그 안에 수호신과 조상의 영혼을 담아 숭배하는 민간풍습이 있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사라지고있는 풍습이지만, 김작가의 집에서는 아직 풍습이 지켜지고있다. 김영곤 작가는 본가의 신주 단지를 떠올려 본 전시의 테마로 하게되었다고 한다. 또한 각각의 향아리 위에는 18-19 세기의 조선 후기 민화에 영감을받은 그림을 그리게된다.

도예가로서의 출발점에 서있는 김작가는 아티스트로서의 정체성을 모색하는 가운데있다. 익숙한 한국을 떠나 타국에서의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통해 자아 발견을 하고 싶다고한다. 3개월의 체재 제작을 통해, 새로운 비약을 기대해 본다.

오타케 테루아키 (마루누마 예술의 숲 학예사)



《Ram Mu Anu》2018



《Ram Mu Anu》2018